

제3회 세종교총 회장기 교원배구대회 안내자료

개막식 및 폐회식 일정

1. 개회식

- 일시: 2023. 5. 15. (월) 17:30
- 장소: 양지초등학교 강당

2. 폐회식

- 일시: 2023. 7. 8. (토) 14:00
- 장소: 참샘초등학교 강당

각 조별 예선전 장소

- 각 조 팀별 학교(QR코드 참고)

주관 및 주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청년교사연합회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A조 경기 일정표

경기 일정	장소	경기 팀명			심판
1경기(5월 23일 17:40)	수왕초	전의	VS	참샘 · 늘봄	최근세
2경기(5월 23일 19:00)	수왕초	보람 · 부강	VS	양지	이우준
3경기(5월 30일 17:40)	수왕초	보람 · 부강	VS	수왕 · 금남	이우준
4경기(6월 7일 17:40)	수왕초	참샘 · 늘봄	VS	수왕 · 금남	서종영
5경기(6월 13일 17:40)	수왕초	전의	VS	보람 · 부강	류기곤
6경기(6월 13일 19:00)	수왕초	양지	VS	수왕 · 금남	전윤재
7경기(6월 20일 17:40)	수왕초	전의	VS	양지	서종영
8경기(6월 20일 19:00)	수왕초	참샘 · 늘봄	VS	보람 · 부강	전윤재
9경기(6월 27일 17:40)	수왕초	참샘 · 늘봄	VS	양지	이종인
10경기(6월 27일 19:00)	수왕초	전의	VS	수왕 · 금남	최근세



B조 경기 일정표

경기 일정	장소	경기 팀명			심판
1경기(6월 1일 17:40)	다정초	도원	VS	조치원대동	박창록
2경기(6월 1일 19:00)	다정초	장기 · 연봉	VS	전동	이상호
3경기(6월 8일 17:40)	다정초	조치원대동	VS	장기 · 연봉	전영준
4경기(6월 8일 19:00)	다정초	도원	VS	다정 · 의랑	이종인
5경기(6월 15일 17:40)	다정초	장기 · 연봉	VS	다정 · 의랑	박창록
6경기(6월 15일 19:00)	다정초	조치원대동	VS	전동	이종인
7경기(6월 22일 17:40)	다정초	다정 · 의랑	VS	전동	김대영
8경기(6월 22일 19:00)	다정초	도원	VS	장기 · 연봉	이상호
9경기(6월 29일 17:40)	다정초	도원	VS	전동	조용운
10경기(6월 29일 19:00)	다정초	조치원대동	VS	다정 · 의랑	이종인



폐회식 경기 일정표(7월 8일)

경기 시각	장소	경기 팀명			심판
6강 1경기(14:00)	참샘초	A조 2위 팀	VS	B조 3위 팀	심재복
6강 2경기(14:00)	다정초	B조 2위 팀	VS	A조 3위 팀	최영묵
4강 1경기(15:00)	참샘초	A조 1위 팀	VS	6강 1경기 勝 팀	심재복
4강 2경기(15:00)	다정초	B조 1위 팀	VS	6강 2경기 勝 팀	최영묵
결 승 전 (16:30)	참샘초	4강 1경기 勝 팀	VS	4강 2경기 勝 팀	심재복 최영묵

[회 순]

1. 식전행사

7. 축사 및 격려사

2. 개회선언

8. 교총은 사랑을 싣고

3. 내빈소개

9. 우승기 반납 및 선수대표 선서

4. 국민의례

10. 경기 및 심판 규정 안내

5. 교육공로자 시상

11. 폐회선언

6. 대회사

12. 기념사진 촬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회사

반갑습니다. 새로운 회복, 성장하는 세종교총 5대 회장 남윤제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교육의 희망인 선생님들과 여러 내외빈을 모시고 제3회 세종교총 회장기 배구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1963년 충남 강경여고에서 병중에 계신 선생님을 위문하며 시작된 스승의 날은 은사의 날을 거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교원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수많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관련 법정 소송, 아동 학대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과 존경은 사라지고 법과 절차, 분쟁만 남겨지게 되었고 스승의 날만 되면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평가절하하는 일부 매스컴들로 인해서 과연 ‘스승의 날이 꼭 필요할까?’ 하는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제자사랑의 마음으로 스승의 모습을 실천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그래도 우리는 학생교육을 멈출 수 없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오로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새로운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였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세상의 기준이며 선생님에게 받은 인정과 사랑은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인 것처럼 세종 미래교육도 결국 선생님이 출발점이며 종착점입니다.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3회 세종교총회장기 배구대회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리그 경기가 운영되는 앞으로 2달 동안 학교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배구 경기를 통해 날려버리시고, 승패를 떠나 부상 없이 경기를 즐기는 세종교총 회원분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5.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남윤제 올림

